

AP, 로이터, AFP 등 주요 통신사들과 합동 기자회견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 대통령 : 나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선거를 7번 했는데 투표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 평창이 동계 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 : 북한은 평창 유치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고,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주된 당사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대회, 남북관계 안정된 토대 위에서 치러질 것

그래서 나는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화해와 협력의 과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2014년이 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안정된 토대 위에서 대회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여러 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러면서 평화와 협력의 올림픽 정신이 남북 간에 함께 충만하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대단히 빠르게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좋은 계기가 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방금 말씀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통령께서 2014년 유치에 성공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공동 입장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지.

▲노 대통령 : 예,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입장 뿐만 아니라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단일팀은 남북관계 진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단일팀이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계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오스트리아 총리 세 분간에 작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유치를 놓고 정상들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올림픽 성공 개최’ 국민약속 전하기 위해 왔다 “

▲노 대통령 : 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 자신의 역량에 의해 올림픽을 유치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조직되고 단결된 역량으로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대회를 반드시 치러내겠다는 국민들의 약속을 올림픽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준비와 조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이지 국가정상들 간의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도자도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올림픽 유치경쟁이 정치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평창 유치에 성공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적인 일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 대통령 : 저는 우리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을 때 국민과 함께 아주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올림픽을 좋아하고 올림픽 정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정부를 수립했는데 정부 수립 전에는 1948년 2월 동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 1950년부터 3년간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중에도 올림픽 대표단이 출전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 하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 북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이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노 대통령 : 지금 ‘단일팀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데 아마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남북이 서로 많은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으니까요. 선수단 구성문제에 관해 지금 서로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일팀은 남북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들에게 좋은 선물

지금 어느 때보다 남북 간에 신뢰가 높고 대화의 수준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 모두 단일팀 구성이 양쪽의 국민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아시다시피 한국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10년’ 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한국이 스포츠에서 약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 대통령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대회를 한국에서 치르도록 결정해 주신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준 여러 위원회가 우리 한국이 대회를 수행하고, 경기를 치르는 능력을 신뢰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스포츠 발전을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과 역량이 향상되고 또 스포츠대회를 통해 국민의 자신감과 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발전, 그리고 대회의 유치,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의 수행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한 등급 높아졌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지명도도 한 등급 높아졌지만, 또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의식까지 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지방도시에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도 치렀는데 경기가 있을 때 그 도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문화적 수준 자체가 아주 높아지고 지방 도시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국가와 각 도시가 이런 경기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선진국 국민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스포츠 또는 아시아 동계 스포츠에 대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동계 스포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 대통령 : 스케이트 신고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웃음) 내가 자랄 때 한국은 가난해서 눈이나 얼음 위에서 하는 스포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빙상경기, 그리고 눈에서 하는 경기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의 소망처럼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도 잘 합니다. (웃음)

- 이제 투표까지 며칠이 남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기여하실 예정입니까? IOC 위원들과 단독으로 만나실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요 포인트로 내세우실 것입니까?

대회·미디어 운영 능력, 다양한 불거리 등 3요소 갖춰

▲노 대통령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기회

이든, 또는 집단적인 기회이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저는 86년 아시안게임, 87년 프레(pre)올림픽-88년은 제가 국회의원이라 못 했고-에서 경기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의 성공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디어 운영이 어떻게 그걸 뒷받침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게임이면서 미디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운영을 잘 뒷받침 해줘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재미거리를,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장에서 봉사하고 경기장 바깥에서 많은 축제를 통해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여러 번 경험도 있고 또 IT와 미디어 부분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열광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돼있습니다. 정말 훌륭히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을 준비해 두었는데 질문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동 웃음)

강원도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 내봐도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평창은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동계스포츠의 출발점이고 중심지입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20% 정도의 스포츠 손님이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 경기가 결정되면 우리 평창은 동계, 특히 설상 경기, 눈에서 하는 경기 중심으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익히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려고 합니다.

1억3천만 달러 투자 ‘드림 프로그램’ 으로 동계스포츠 지원

-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아는 빈곤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에 와서 설상 스포츠를 하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뭔가 보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노 대통령 : 지난 4년 전부터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계 스포츠를 하기에 불리한 나라 아이들을 초청해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36개국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평창에 와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졌지만 약속한대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번에 당선되면 아마 사업을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드라이브 더 드림 프로그램(Drive the Dream Program)을 운영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1억3천만 불(1240억원) 정도를 투자해 우리나라와 세계에 동계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